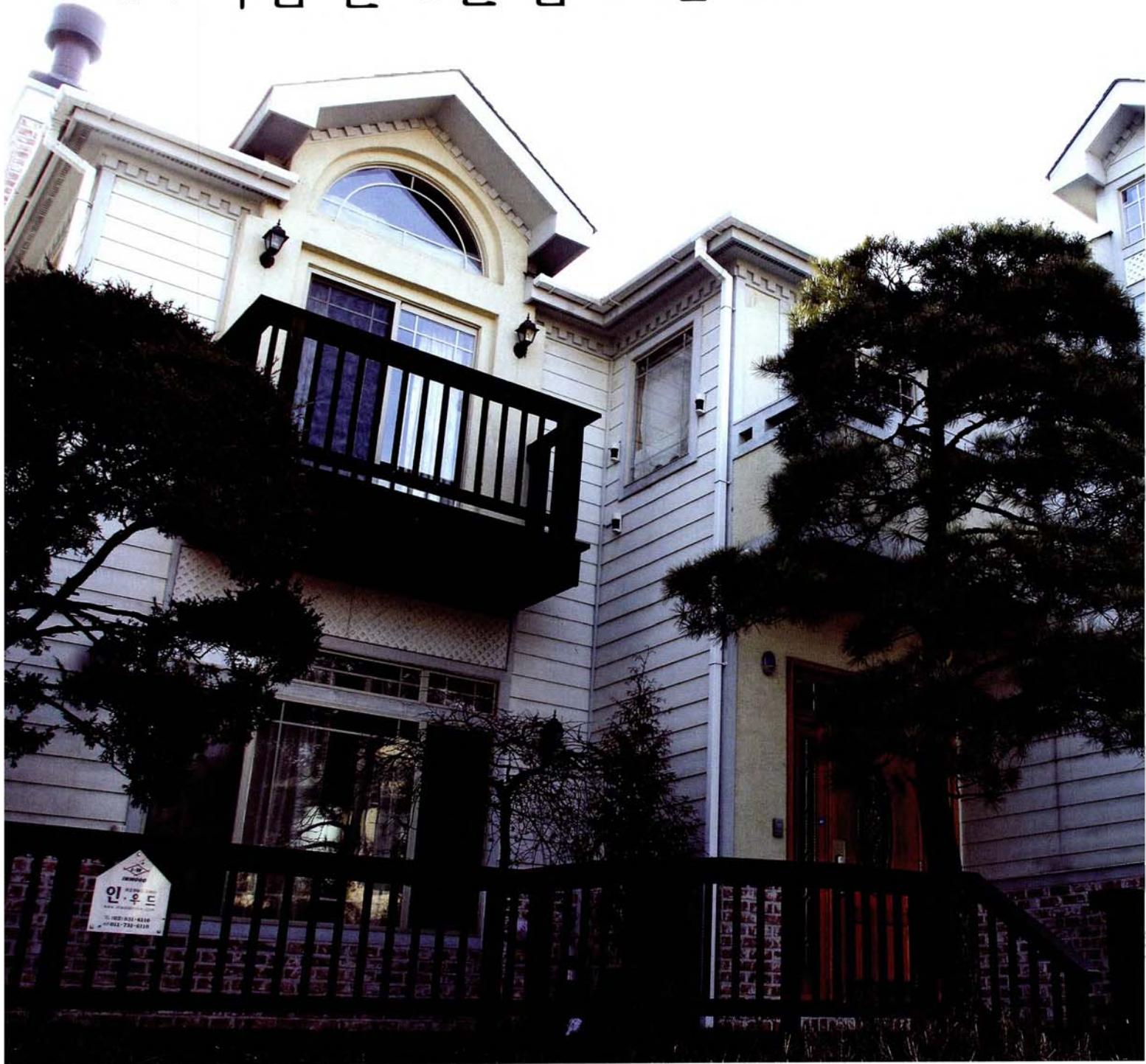


담장 없는 집 일산 장항동

신도시 생활의 백미 내가 직접 설계한 집에서 사는 재미



인·후드
☎ 02-833-4316
☎ 02-722-6110



자유로를 타고 호수공원 쪽으로 빠져 지하차도를 지나 5분쯤 가다 보면 구릉형 산지 정발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발산은 산봉우리가 솔과 같이 빽빽하고 산 아래쪽은 주발과 같이 생겼다 하여 '정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산세가 완만해 등산과 산책을 하기에 좋다. 10분만 투자하면 정발산에서 '평심루'라는 누각에서 일산 시가지를 바라보는 여유도 만끽할 수 있다.

정발산 기슭에 모여 있는 3000여 세대의 고급주택들은 단독주택단지라기보다는 주택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획일적인 강남 고급주택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높은 담으로 둘러쳐진 강남 고급주택과는 달리 이곳은 담이라고 해 봐야 낮은 울타리나 앞뜰을 지키고 있는 대문이 고작이다. 그래서 더 푸근하고 정감이 간다. 외벽 마감재도 특색 있다. 웰빙 시대에 맞춰 이곳 대부분의 주택들은 목재나 스틸을 기본으로 벽돌과 인조석, 황토 등의 마감재를 잘 조합해 지어졌다.



자그마한 정원과 야트막한 담장을 갖춘 2층 규모의 고급주택이 밀집한 일산 장항동 고급주택단지. 푸근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일산 정발산 기슭 고급주택단지로 산책을 나가보자. 에디터 양지영 사진 이흥규



도심 속 고급주택처럼 단순히 벽돌이나 목조주택이 아니라 외벽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재료로 마감해 좀더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외관을 연출한 것이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강남의 거리보다 더 잘 구획돼 더 안정된 느낌이다.

신도시의 택지들은 대개 필지별로 분할해 분양을 받은 것이어서 이미 집을 짓기 전에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즉, 집이 한 채 두 채 들어서면서 골목이 다져진 것이 아니라 골목이 먼저 구획된 후 집이 들어선 것. 전통적인 의미는 없지만 낮은 담장과 독특한 개성을 지닌 집들에서 친근감이 느껴진다.

수채화처럼 펼쳐진 곳에 살으리랬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서구식 목조주택과 유럽풍 집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일산 정발산 기슭. 이곳 사람들은 서울 강남의 중형 아파트와 엇비슷한 가격으로 최적의 주거 환경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

4년 전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생활에 흠뻑 빠져 살고 있는 김창석(가명) 씨와 부인 그리고 아들과 딸.

김씨가 이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은 영국 런던을 여행한 후였다. 수채화처럼 펼쳐진 전원주택에서 오순도순 사는 가족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 특히 그는 중학교 입학 앞둔 아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다섯 번의 사전 답사를 거쳐 그는 도심에 인접하면서도 전원 분위기를 두루 갖춘 일산 장항동을 선택했다. 김씨는 우선 필지 80평을 4억 원에 매입했고, 건축비는 조경 공사를 포함해 2억 원가량 들여 지상 2층 짜리 흰색 목조주택을 지었다.

10평가량의 아담한 정원도 앞뜰에 조성하고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담은 세우지 않았다. 실내는 은은한 향기를 내는 목재로 디자인했다. 외



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 은은한 나무향이 먼저 반긴다며 환한 웃음을 짓는 김씨의 표정 속에서 이곳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층별 설계 부분에서는 1, 2층 간의 독립성을 강조한 분리형 공간 배치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인다.

1층은 넓고 시원한 공간 배치로 활동성을 강조했다. 현관 옆에 큰 창을 설치해 채광과 조망이 뛰어나며, 그 옆으로는 붉은 벽난로를 설치해 운치를 더했다.

2층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독립적 공간으로 배치 설계했다. 그리고 데크를 만들어 시야를 넓혔고,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열차단형 평면 배치를 도모했다.

김씨는 아파트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자연과 벗삼아 가족과 오래 살고 싶은 곳이기엔 정이 더 간다며 환한 웃음을 내비친다.

일산은 지난 92년 분양 당시 평당 150만~160만 원에 분양됐으나 현재는 평당 900만~1000만 원으로 형성돼 있다. 대지 면적 67평짜리(건평 60평) 단독주택이 5억 5000만~6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한동안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주말 여가용 주택을 건축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주말마다 밀려드는 행락객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역효과를 내면서 그 인기가 시들해졌다. 반면 학교나 병원, 쇼핑 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 내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공공 택지라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형 전원주택 지역으로 손꼽히는 일산이 향후 주택 트렌드 변화에 어떤 힘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